

홀트소식

SUMMER 2020 VOL.198





여름 이야기

눈만 마주치면 웃었다가도 웃기만 스쳐도 싸우는 동동
이들은 누가 뭐래도 찰떡같은 형제입니다. (7p 계속)



Contents

- 04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어서 와, 온라인 개학은 처음이지?
- 07 행복한 가족 만들기 1
제14회 입양가족 작품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
- 12 행복한 가족 만들기 2
김 페굴라의 특별한 하루
- 14 행복한 가족 만들기 3
가가호호(家加호호) : 가정에 웃음을 더하다
- 16 꿈과 희망 1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로타바이러스
- 18 꿈과 희망 2
결연아동에게 특별한 어린이날을 선물했어요!
- 21 Love In World
해외사업장은 이렇게 코로나를 극복해나가고 있어요
- 25 나눔 기업 1
우리는 육아 동료! 나눔세아입니다!
- 28 나눔 기업 2
집콕라이프, 우리 집은 오늘도 맑음~
- 30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홍현국 이사장(홍현국회계사무소 대표) | 정용근 이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임부용 이사(前 HICS 부회장)
| 설태호 이사(주복상사 대표) | 김경희 이사(前 홀트
전국후원회 회장) |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린다백 이사(홀트아동복지회 이사) | 최수열 감사(삼
도회계법인 파트너) | 박철용 감사(삼덕회계법인 부
대표)

본부 02) 331-7000
지방본부
부산지부 051)468-4576
대구지부 053)756-0183
충청지부 042)586-1983
인천지부 032)424-0145
광주지부 062)227-8877
경기지부 031)217-3292

부속기관

홀트복지타운 031)914-6631
홀트학교 031)915-2913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고양보호작업장 031)929-1491
고양시재활스포츠클럽 031)929-1500
홀트강동복지관 02)2251-61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051)760-3600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053)563-1007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3142-5482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790-2966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 053)627-8875
홀트광주심리상담센터 062)363-8878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 032)424-5839

전주영아원 063)222-155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홀트어린이집 031)217-0437
홀트대구어린이집 053)746-7504
하남은방울어린이집 031)790-297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침들 042)585-3004
고운들 031)216-9004
아름들 02)334-4614
대구클로버 053)654-0181
마포클로버 02)322-3325
대전클로버 042)583-4006
광주클로버 062)361-5900

국제개발협력

홀트드림센터
(캄보디아, 탄자니아, 몽골, 네팔) 02)331-7086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통권 | 198호 · 계간 발행일 | 2020년 6월 30일 발행인 | 홍현국 편집인 | 김호현
발행처 | 나눔사업본부 홍보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후원문의 | 1899-0923 후원ARS | 060-700-1006
홈페이지 | www.holt.or.kr 디자인 | 알투디투
좋은 사연 · 좋은 제언 | pr@holt.or.kr

어서 와, 온라인 개학은 처음이지?

홍보팀 우은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면서 홀트아동복지회 산하 특수교육기관인 홀트학교 또한 온라인 수업 준비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3차에 걸쳐 개학 연기하였으며, 유치원에서 전공과까지 총 57명의 신입생은 온라인으로 입학식을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겪었습니다. 학생들이 없어 침체되어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학교 분위기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의 열정으로 가득 찼는 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홀트학교 모습을 함께 보시죠.



“민지야, 잘 지냈어?
오늘은 우리 민지 목소리가 잘 들리니까 참 좋다.
주말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이 다정한 인사를 나눕니다. 교실에서 만나지 못할 뿐,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은 실제 수업시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조회와 종례 역시 마찬가지인 데요.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등교 개학을 할 때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조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네이버 밴드(BAND)’에서 교사들이 직접 촬영하고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합니다.

홀트학교만의 특별한 수업


처음에는 교사들도 대면 수업에 익숙해 있던 터라 온라인 교육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갖기도 했지만,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반학교 학생들은 EBS를 통해 온라인 수업을 받지만, 특수학교 학생은 주의집중 시간이 짧으므로 적합하지 않아 교사들이 직접 교육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내주고 확인하는 수업방식보다 좀 더 흥미를 느끼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직접 동영상에 출연하는데요. 1시간짜리 수업 영상과 PPT 자료를 만들기 위해 10시간이나 공을 들여 준비합니다. 진심을 다하면 통한다고 하죠. 서툴지만 최선을 다한 선생님들의 마음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도 닿았습니다. 자녀의 학습결과물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학급



밴드에 올리거나, 긍정적인 댓글로 선생님들을 격려해주시기도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젊은 교사들의 톡톡 튀는 감각과 그들을 지지해주는 선임 교사들이 시너지를 내어, 수업 영상에는 선생님들 각자의 경험과 개성이 조화롭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적극적으로 위기를 대처해나감에 공유, 협업하여 선생님들 간의 협력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댓글을 남기다 보니 기기사용능력이나 소통능력이 강화되는 등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능력이 향상되기도 했습니다.



홀트학교는
학생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62년 특수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공과 과정까지 총 29개 학급으로 구성되었으며 180여 명의 지적장애 학생들이 졸업 후 자립과 취업을 목표로 교육받고 있습니다. 국악, 오케스트라, 합창, 스포츠클럽, 중도·중복장애학생 프로그램 등 예·체능 특성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을 찾아주는 'Dream 마중물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라이브방송을 통한 실시간 소통

전공과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2시의 데이트'는 매일 점심 이후 2시부터 진행되는 라이브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교사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푸른 학교 정원을 배경으로 한 선생님들의 무대는 공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음악 큐! 선생님들 너무 멋있어요~', '데뷔합시다~~!' 학생들 역시 댓글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홀트학교 선생님들의 다재다능한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중학교 추연희·조현애 담임선생님의 종례시간 라이브방송은 EBS프로그램 '톡!톡! 보니하니'가 바로 떠오를 정도로 최상급 케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작 버튼을 틀자마자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 순간 유튜버의 일상을 보는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고민해왔는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사전에 멘트를 준비하고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마저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소소한 일상들이 멈춰버린 지금,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기를, 선생님과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더욱 활기찬 홀트 학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친구들~ 얼른 학교에서 만나요. 보고 싶어요!

- 중학교 최청림 선생님

항상 방학이 지나면 보고 싶고 생각하는데, 이번만큼 여러분을 간절하게 기다려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항상 빈자리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허전하고 언제 만날 수 있을까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 조금만 더 힘내고 학교에 오면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더 신나고 재미있게 학교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곧 만나요!



온라인 교육 Q&A

- 허남석 초등 교무부장선생님

Q 온라인 개학,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 기기와 실물교재 교구를 대여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를 비롯하여 보육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 학급 선생님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안내장, 친구들의 얼굴이 인쇄된 안내장 등이 담겨있는 학습준비물 꾸러미를 가정으로 전달하였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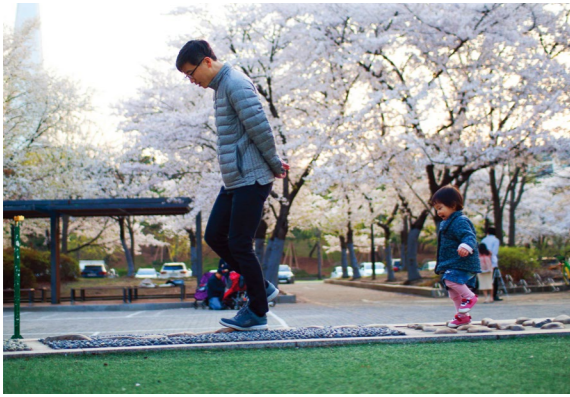
학교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여 열화상 카메라 작동, 발열 체크, 비상격리실 운영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행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14회 입양가족 작품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

홍보팀 우은영

'아름다운 행복'은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공개 입양 도모 및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주)호텔롯데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한 달간 입양 아동과 가족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사진과 동영상 작품을 공모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진 56작품, 동영상 9작품이 응모된 가운데 사진 10작품과 동영상 2작품이 선발되었으며, 당선작은 사진 각 30만 원, 동영상 각 50만 원의 원고료와 함께 롯데시네마 영화예매권이 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5월 9일부터 31일까지 롯데호텔월드 2층에서 전시회를 진행하였는데요. 가정의 품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함께 만나보시죠!





아빠 뒤따라 갈래요 강윤화

추운 겨울이 지나고 화사한 벚꽃 피는 날이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설레듯, 입양을 통해 만난 우리 딸은 아빠, 엄마에게 벚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활짝 핀 벚꽃보다 따뜻한 봄바람보다 우리 딸의 활짝 웃는 모습이 아빠 엄마의 마음을 더 따뜻하고 설레게 합니다. 딸의 작은 발이 내디딜 앞으로의 많은 날이 늘 봄의 꽃길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소심한 복수 김영환

은희와의 첫 만남은 일반가정위탁을 통해서였습니다. 100일을 갓 넘긴 아이는 낯은 엄마 대신 자신을 돌봐줄 가정이 필요했습니다. 3년의 위탁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친모에게 돌아간 줄 알았던 은희가 그룹홈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순간 '입양'은 우리에게 내려진 숙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입양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고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 사랑 동동이들 김지민

2017년 어느 여름, 네 살이던 동하는 형이 되었습니다. 병원이 아닌 어느 사무실의 둥그란 테이블에서 아빠, 엄마, 형아는 온 마음으로 동주를 맞이하였습니다. 동생이 오고 부쩍 늘어난 떼부림. "엄마는 그래도 네가 최고"라고 이야기해주었지만 동하는 아마 믿지 못했겠지요. 어느덧 동주가 그때의 동하 나이가 되었습니다. 둘은 지금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되었는지요. 동동이들은 누가 뭐래도 찰떡같은 형제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의 울타리입니다. 김한수

생후 5주 규답이를 입양한 후, 어느덧 12살 소녀가 되었습니다. 지인 중에 입양으로 가족이 된 동생들을 종종 만나면서 아무리 살뜰히 보살펴도 엄마, 아빠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규답이에게 가족 같은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입양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딸을 만났지만,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하는 세 명의 엄마들이 만들어준 울타리입니다.



다이빙하는 용기쫄이야 서원영

홀트 서울 동북부에는 뱀띠 친구들이 유독 많습니다. 2019년 새해 모임을 하다 다같이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해보면 어떠한 말이 나왔죠. 시간이 지나 정말 여행을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며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로 홀트 한사랑회에서 만난 친구들을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빠와 버블파티 심은심

"엄마, 아빠, 은채는 가족이야" 서툰 표현으로 던진 우리 딸의 말에 가슴에서 폭죽이 터지듯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당연한 말을 그냥 했을 뿐인데 왠지 모를 진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딸을 만난 이후로 평범한 일상에 사소한 것 하나도 그 무엇보다 값진 인생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성문

여보~ 우리가 고민 끝에 입양했는데 정말 우리가 결혼하고 선택한 가장 멋진 일 같아! 그리고 올해 둘째가 우리 가정에 온다니 정말 꿈만 같아. 그동안 아이를 키우는 하루하루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가슴 가득 다가오는 행복이 더 크기에 오늘도 어제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 "예비입양가족 여러분! 입양 말이에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안 해보면 진짜 몰라유~~"

너랑 있을 때 제일 신나 정은주

희원이, 주원이와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시간이 어느덧 천일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마음에 담아가다 보니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나의 일부가, 너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가 들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사랑스러운 두 아이가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네요. 저는 이렇게 입양 덕분에 행복해지는 '엄마'입니다.



쉬운 기부를 만나다

원하는 사연에 원하는 만큼 기부할 수 있고
사진 한 장만 올리면 1,000원이 기부돼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불꽃'을 검색해주세요!



QR코드 활용하여
불꽃 App 설치하기



할머니는 세상에서 솜이가 제일 좋아! 천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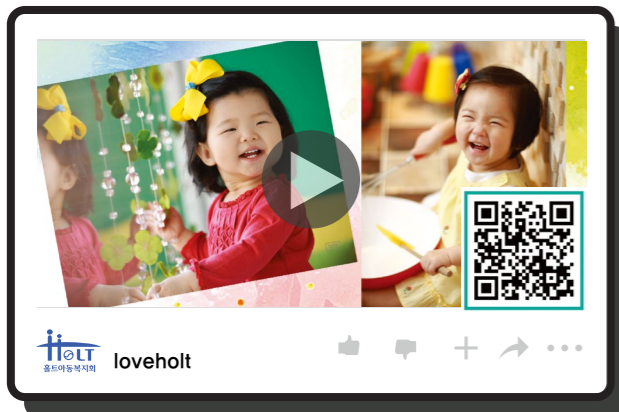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정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상실감으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2018년 딸 솜이를 입양하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공허함이 손녀에 대한 사랑으로 짝짝 넘쳐났습니다. "난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보긴 처음이야." 솜이를 향한 어머니의 짝한 고백이 너무나 감사한 요즘입니다.



하루 만에 만나는 날 천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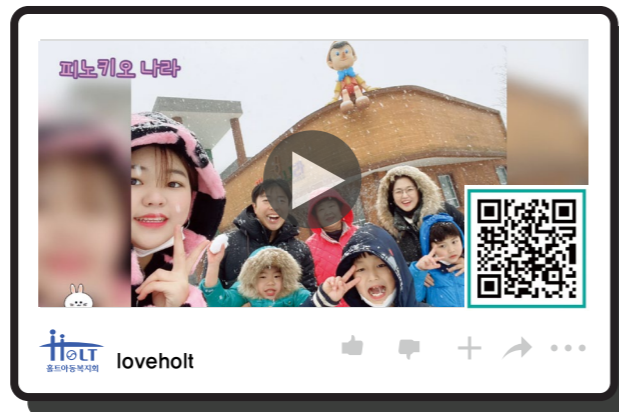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이 하루 캠프를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엄마를 앞장서 성큼 걸어오는 모습이 무척 든직해 보이니까 해서 몽클하고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동영상
부문



우리 가족 입양이야기 김현주

공개입양을 결정하고 아이 학교에 직접 가서 반 편견 입양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큰 딸의 학교에 강의하게 되었고, 모든 수업을 끝내고 돌아온 큰딸은 많이 울었습니다. 친구들의 질문쇄도와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제 품에서 울던 아이는 이제 입양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피노키오 가족 노연정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동화와 영화를 보고 폭 빠진 은택이는 2012년에 입양한 장남입니다. 은택이는 종종 자신의 특별한 출생이 궁금한지 입양에 대해 질문해 오곤 합니다. 입양은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무 인형이었던 피노키오를 아들로 받아들인 사랑의 행동이었고, 은택이 역시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의 소중한 장남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김 페굴라의 특별한 하루

입양가정지원센터 류민현



매년 6천여 통의 이메일을 통해 입양인들을 만나는 일은 늘 새롭고 설레는 일상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작년 8월, 평소처럼 한 입양인에게 메일을 받았습니...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1970년대 초 서울의 노량진. 만 다섯 살 여자아이가 노량진 파출소 앞에서 발견됩니다. 인적사항이나 보호자를 알 수 없어 인근의 보육원에 입소된 후 '김숙희'라는 이름과 '1969년 6월 7일'이라는 추정 생...

입양인을 만나는 사회복지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일 중 하나는 바로 기아로 발견된 입양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친가족 정보도 없을뿐더러 어떻게 입양을 가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녀 역시 입양 배경에 대해 질문하리라 예상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이해를 도울지 고민하던 중 입양인의 첫마디는 뜻밖이었습니다. "Thank you, I'm blessed, (고맙습니다. 저는 축복받았어요)" 입양을 통해 만난 가족, 기회 덕분에 지금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고백에 마음이 한없이 뭉클해졌습니다.

백발의 양아버지는 1974년 입양 당시 미국 JFK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50년 가까운 세월만큼이나 빛이 바래진 사진이었지만 온 가족이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마중 나가 입양인을 만났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바로 어제 일처럼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하였습니다. 양부모님에게는 두 명의 친아들이 있었고 한국에서 막내딸을 입양하였습니다. 입양인의 오빠들은 이번 여행에 함께하지 못해 아쉬워하며 홀트에 가면 꼭 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여동생 Kim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양아버지를 비롯하여 맞은 편에서 듣고 있던 입양인, 그의 남편, 그리고 상담원까지 모든 이들의 눈시울이 촉촉해졌습니다.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했던 상담원의 질문에 피식 웃던 입양인은 우연히 뉴욕의 식당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답합니다. 남편 테런스 페굴라(Terrence Pegula)는 당시 천연가스회사를 창업, 페굴라의 도움으로 회사가 크게 성장하여 자산 40억 달러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회사를 매각하고 자신의 오랜 꿈인 미국 프로미식축구팀 '버펄로 빌스(Buffalo Bills)' 구단을 인수하였습니다. 페굴라 부부는 2014년 구단 인수 당시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과 인수 경쟁을 펼친 끝에 꿈에 그리던 풋볼 구단의 공동 구단주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서구 출생이 아닌 NFL 구단주라는 이력에 미국 전역이 주목했고, 현재 'Pegula Sports and Entertainment'의 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페굴라에게 홀트 파일에 보관하고 있던 다섯 살 시절 사진을 기념으로 건네주었습니다. 반세기를 지나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 돌아온 50살의 숙희가 다섯 살 숙희의 모습을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홀트를 방문하여 입양기록을 열람한 그녀는 입양 전 자신이 머물렀던 시설을 둘러보고, 한국에 있는 버펄로 빌스 팬들과 팬미팅 일정을 소화한 후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편의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페굴라는 매우 겸손했고 배려가 깊었으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임을 그녀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알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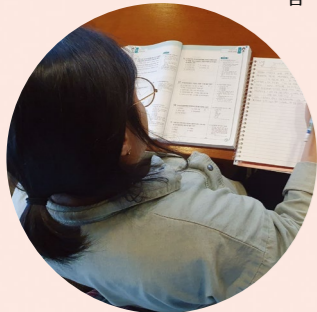
가가호호(家加호호) : 가정에 웃음을 더하다

미혼한부모지원센터 원나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네요. 이제 일을 시작해서 수급비도 받지 못하는데... 급여도 적다 보니 다달이 월세 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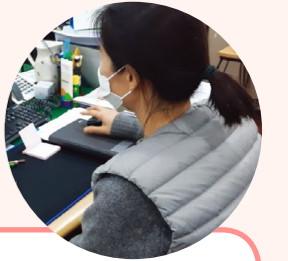
이렇듯 미혼한부모의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실제 미혼한부모의 자립 과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홀트아동복지회는 미혼한부모의 자립기반을 돕고자 저소득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미혼한부모가정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가가호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립을 준비 중이거나 자립과정에 놓인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한 사람당 월 최대 15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였는데요. '가가호호'는 기존의 미혼한부모가정지원사업 중에서도 특히 근로와 교육 이력 등을 통해 미혼한부모의 자립 의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선정된 미혼한부모에게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가가호호'에 참여한 미혼한부모는 공통으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가 안정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었으며,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취업과 자립에 대한 의지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미혼한부모가정에 웃음을 더해주었던 '가가호호'는 올해도 계속되며, 더 많은 미혼한부모가정이 자립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가가호호'에 참여한 미혼한부모의 이야기



“도움을 받게 되어 해지했던 저축을 적게나마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경제적 부담으로 그만두었던 아이 수영수업도 다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가호호 사업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큰 도움을 받게 되어 또 다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발전할 수 있는 제 미래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직장을 얻고 자립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데, 정부에서는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며칠 사이에 모든 수급과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무섭고 걱정스러웠습니다. 당장 생활비와 주거비가 큰 부담이 되었는데, 그러던 중 가가호호 사업을 만나 안심되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직장을 다니면서 전세자금과 아이 학자금도 저축할 예정입니다.”

“가가호호를 통해 월세 중 일부가 지원되어 10개월 동안 저축할 수 있었고, 저축한 돈은 아이가 너무나 다니고 싶어 했던 학원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정지출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주거비를 지원받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육아 문제 때문에 안정적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앞으로 살아갈 발판을 단단히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뛰었지만 그럴수록 현실은 혹독하기만 했습니다. 가가호호 사업을 만나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 신분으로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걱정되었는데, 가가호호를 통해 주거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걱정을 덜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에게 필요했던 부분을 더 지원해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아이에게 더욱 책임감 있는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필수 예방접종이 되지 못한 로타바이러스 백신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면역력이 약해져 다른 바이러스에도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아동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영유아의 기본 접종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장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최우선으로 퇴치해야 할 전염성 질병'으로도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백신이다 보니, 접종 가격이 다른 필수접종에 비해 훨씬 비쌉니다.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보호하고 있는 약 200여 명의 입양대기아동 중에는 미숙아, 저체중 아동,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 등 면역기능이 약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입양대기아동들은 입양을 가기 전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건강체크, 발달치료 등의 외부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 입양대기아동 스토리 확인하기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로타바이러스

나눔협력팀 · 아동양육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더욱 위험한 '로타바이러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성행하고 있는 지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을 위협하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로타바이러스는 전 세계 아이들의 95%가 만 5세 이전에 한 번 이상 감염되는 질병으로, 초기에는 콧물, 기침, 발열 등의 가벼운 감기 증세가 나타나고, 이후에는 심한 구토와 설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심해질 경우 탈수증세로 이어져 심각한 경우 아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로타바이러스는 비누, 소독제에 대한 내성이 있어 손을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는 예방이 어렵습니다. 손 세정제도 견디는 끈질긴 바이러스다 보니, 장난감과 가구 등, 딱딱한 표면에서도 오랫동안 남아있는 바이러스입니다. 병원, 놀이터, 어린이집 등 우리 아이들의 활동 범위가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로타바이러스와의 접점은 많아집니다.

무서운 로타바이러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세상에 첫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로타바이러스라는 위협을 먼저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보호해주세요.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은 입양대기아동들을 위한 로타바이러스 백신 구매비용으로 전액사용될 것입니다. QR코드를 통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족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웃을 수 있도록, 로타바이러스 백신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전달해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후원 060-700-1006
정기후원 1899-0923
후원계좌 국민은행 479037-01-000461

결연아동에게 특별한 어린이날을 선물했어요!

나눔참여팀 김지민

모든 어린이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어린이날. 어떤 선물을 받을지, 무얼 먹을지, 어디로 놀러 갈지 행복한 상상을 그려 보지만, 올해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했었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친구들을 그리워하면서 어찌면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결연아동들이 안전하고 무사히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하는 후원자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후원자님의 따뜻한 사랑을 담아, 아이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이 더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연아동 124명에게 특별한 어린이날을 선물하였습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결연아동 선물 소개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에게 특별한 어린이날을 만들어주기 위해 학용품과 건강을 위한 비타민, 상품권, 보드게임, 다양한 간식 등 풍성한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선물을 받고 아이들이 정성껏 적어준 편지를 보며 아이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연아동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진 아이들의 가정에 큰 행복이 되었다. 종합선물세트처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과 집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등 다채롭게 구성되어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싱그럽고 따뜻한 향기를 전해준 후원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 결연아동의 인권 및 초상권 보호를 위해 얼굴을 가렸지만,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환한 미소를 짓는 아동의 모습은 결연후원자님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함기나는 결연, 허브’는 어린 아들이 평생을 품어줄 입양 부모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가정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발달 시기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후원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연아동들의 든든한 후원자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6
후원자님,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후원자님도 건강하시고, 이 시간을 잘 이겨내 보아요!
99



향기나는 결연, 허브란?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결연으로 연결되어,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양육비, 치료비와 한부모, 조손, 다문화 등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생계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몽골, 네팔, 탄자니아의 해외 빈곤 아이들의 정서, 교육, 건강과 가정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은 이렇게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해외사업팀 한세희

전 세계를 뒤덮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개발도상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료시스템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휴교령, 국가봉쇄령, 통행금지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이러한 가운데 가장 고통받는 것은 빈곤 가정과 아이들입니다. 코로나 이후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수입이 줄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휴교령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일하러 나간 사이 집에서 온종일 방치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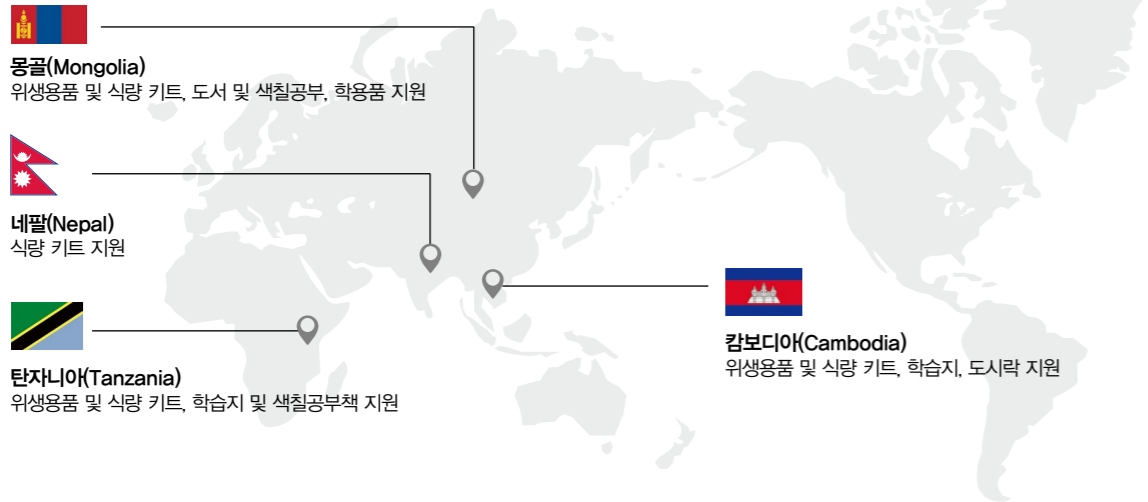
홀트아동복지회는 해외사업장(홀트드림센터)이 있는 국가의 빈곤 가정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위기단계별 대응방안을 구축하고 긴급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별 해외사업장 대응방안



해외사업장별 대처 현황



1단계 확진자 발생 : 위생교육

사업장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 예방의 중요성, 손 씻기의 중요성, 손 씻는 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센터 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갖추어 센터에서부터 질병이 예방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였습니다.



2단계 휴교령 : 긴급키트 지급

확진자 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집에 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의 안전과 영양을 위해 마스크, 손 세정제, 비누 등의 위생물품과 식료품을 긴급키트로 구성하여 총 571아동에 1차로 배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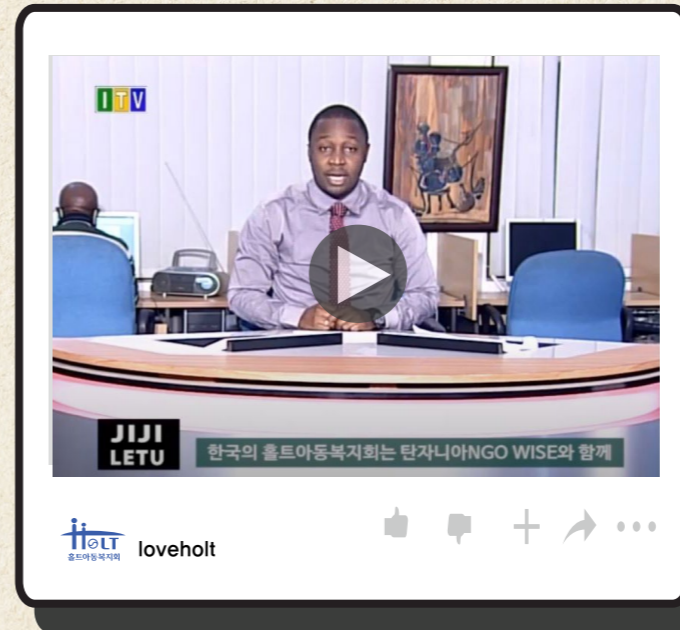
3단계 휴교 장기화 : 월 1회 식량키트 및 학습, 놀이 용품 지급

휴교가 장기화하면서 아동방임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던 가정은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장기화한 휴교 상황과 국가별 조치에 맞추어 식량키트를 배분하고, 아동 방임 상황에 필요한 학습지와 놀이 용품을 1,140명 아동에게 지급하였습니다(5월 기준).



4단계 장기화 : 지역사회 주민 대상 긴급키트 지원

피해는 지역사회에까지 번져, 주민은 수입이 줄고 아이들은 계속 집 안에 방치되어 있어 끼니를 거를 때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를 위해 긴급키트를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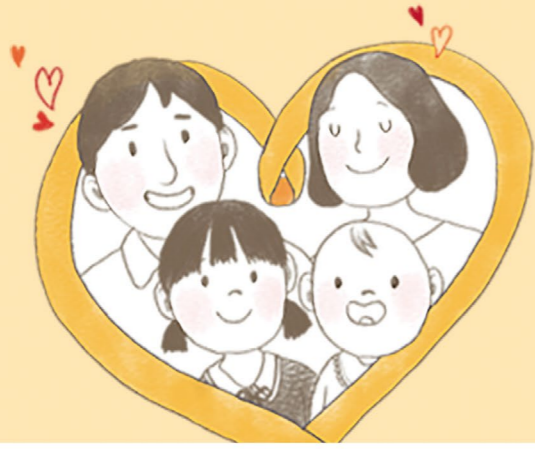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탄자니아 코로나19 긴급지원 현지 보도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탄자니아 긴급지원 현지 보도



저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숙자웃 유람입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저도 마스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한국 후원자님도 꼭 안전하고 건강하길
바랄게요!

해외 빈곤 아동과 가정이 겪을 혼란과 어려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위생적이지 않고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집안에 남아 영양지원과 학습의 기회로부터 방치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언제쯤 종식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빈곤 가정과 아동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 가득한 위탁가정을 찾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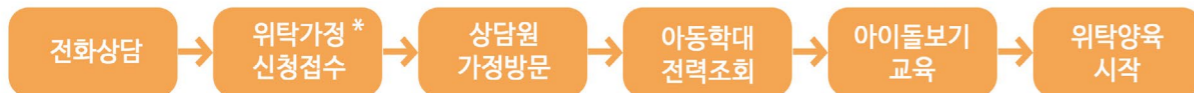
신체·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후 1개월에서 3세 미만인 아동들은 인지·정서·언어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가정 선정요건

-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아동에 대한 애정이 있는 가정
- 신청인의 나이가 25세 이상 60세 이하로 아동양육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막내자녀가 초등학교 이상인 가정
- 교통이 편리하여 대중교통으로 쉽게 본회로 이동할 수 있는 가정
- 다른 부업을 하지 않거나 겸업하지 않는 가정
-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가정
- ※ 보건복지부 위탁가정 운영지침에 부합하는 가정

위탁가정 선정절차



* 사무실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진단서 1부 (B형간염 항원·항체 표기포함)
- 위탁부·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3년치)

위탁가정 지원

- 소정의 양육비
- 아동 양육 물품지급
- 아동 의료비 지원

문의 및 신청 홀트아동복지회 아동양육팀 (02-331-7040~5)

우리는 육아 동료! 나눔세아입니다!

나눔협력팀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고, 같은 조리원에서 지낸 사람들을 '조리원 동기'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생명을 함께 키워내고 있다는 동질감 때문인지 엄청난 의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조리원 동기는 아니지만 육아 동료로서 함께 아이들을 키워낸 세아그룹 '나눔세아'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나눔세아는 세아의 그룹사가 모두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입니다. 매년 연말, 인트라넷과 그룹 사보에 홀트아동복지회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임직원들의 개별적인 참여와 더불어, 연간 모아온 월급의 끝전을 기부하기도 하고, 사내 우수 직원 포상으로 받은 상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와 세아가 함께 키우는 아이들'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 여러 방식으로 참여 해주신 임직원 모두는 아이들을 함께 키워내는 육아 동료입니다. 벌써 다섯 번의 캠페인을 통해 준오, 동훈이, 한이, 성현이, 하민이* 총 5명의 아이를 키워냈는데요. 나눔세아는 연 1회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일 년 동안 축적해온 세아 임직원들의 이야기가 후원금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아동 이름 모두 가명

감사하게도 이 캠페인에 매년 빠짐없이 참여해주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중 몇 분께 참여하게 된 동기와 기억에 남는 이야기, 소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나눔세아 캠페인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나눔의 통로로, 함께한다는 자부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눔세아의 손길은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양육 및 의료기금을 비롯하여 오랜 기간 기다려 가족을 만났지만, 의료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의 치료기금 등 필요한 곳곳에 세심하게 닿았습니다.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만났지만 육아 동료로 깊어진 인연이 앞으로도 쭉~욱 계속되길 기대해봅니다.

////////// 모금, 후기 이야기 '한이에게서 온 편지' //////////

세상을 아름답게,
세아 SēAH



“

아픈 순간들을 곳곳하게 이겨낸 아이들 모두가 기특하고 대견스럽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성현이는 온 가족을 놀라게 했던 조카의 어릴 적이 떠올라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건강한 성년이 된 제 조카처럼 성현이의 앞날도 행복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 세아홀딩스 백경준 팀장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다 보니 세상의 시작이 남들과 달랐던 아이들의 이야기에 감정이입 되어서 후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세아베스틸 성기람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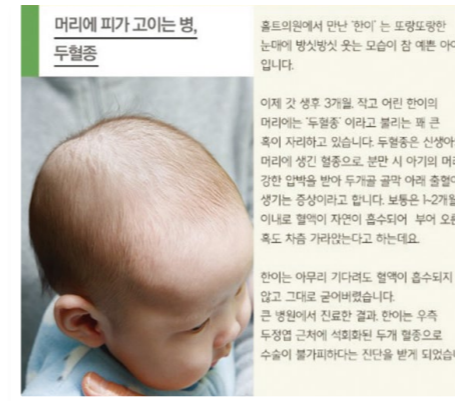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보고 자연스럽게 클릭하게 되었고 후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세아창원특수강 이승현 팀장

내가 세아의 가족으로 작은 일이지만 무언가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작은 금액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 세아ESAB 황인범 분임장

”



////////// 세아그룹 사보에 실린 나눔캠페인 '성현이의 헬멧이 되어주세요' //////////



집콕라이프, 우리 집은 오늘도 맑음~

나눔협력팀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인들은 재택으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아이들은 수개월 등교가 연기되어 5월 말에 되어서야 학교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자유로운 외부 활동도 자제해야 했기에 많은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 전 세계적인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더 커졌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에 코로나19 대응단계에 맞춰 긴급지원키트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위생 용품을 비롯하여 식료품과 교육 자료 등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키트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적인 부분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고민하고 있을 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9년 현대리바트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해 온 취약계층아동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지속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65대의 공기청정기 렌탈 서비스를 365일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어느 때보다 필요가 컸던 만큼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사실 후원을 받은 후, 혹시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전과 비용 차이가 없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만족하고 후원해주신 현대리바트와 홀트아동복지회에 감사합니다.”

“작은 반지하에 살아서 환기도 어렵고 공기도 좋지 않았는데, 쾌적해진 느낌입니다. 아이들이 움직여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답답하다고 느낄 때면 아이들이 먼저 다가가서 공기청정기를 켭니다. 아이들도 이 효과를 느끼고 있나 봐요.”



온종일 집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쾌적한 실내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하며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황사까지 그 어느 때보다 실내 공기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집은 바이러스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공기청정기라는 작은 변화이지만 지원받은 365가정도 집이 안전한 곳이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탑리더스
이현정 위원
자녀생일기념
특별한 후원**



3월 27일, 홀트 고액기부자 모임 Top-Leaders 이현정 위원이 자녀의 두 번째 생일을 기념하며 365만 원의 소중한 후원금을 기부하였습니다. 이현정 위원의 특별한 후원은 작년에 맞이한 자녀의 돌 기념 후원에 이은 생일기념 후원이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홀트의 다양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홀트 전국후원회, 코로나19 대구·경북지역 위기가정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전국후원회(서울, 부산, 경북, 대전, 광주, 인천, 경기, 강원, 대구, 전남, 경남, 전북, 충청, 제주 등 13개의 지역 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97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후원금은 대구·경북 지역의 위기가정에 전달할 필요물품(마스크, 손 세정제, 식료품 등) 구매를 위해 사용되며, 위기가정의 안정을 위하여 의료 및 정서 지원에도 사용됩니다. 전국후원회는 13개 지역에서 홀트아동복지회 모금 및 홍보를 위해 항상 애쓰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전국적으로 어렵고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때에도 마음과 뜻을 모아 후원금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주)디웨이브, 지니더바들(주), (주)대흥C&P 맘앤키즈 500세트 후원

5월 20일, 디웨이브, 지니더바들, 대흥C&P는 지니더바들의 아이낫어베이비 키즈샴푸, 바디워시, 아쿠아 봄봄 크림을 ‘맘앤키즈 세트’로 구성하여 우리회에 500세트 전달했습니다. 맘앤키즈 세트는 미혼한부모 500가정에 전달되었으며 나눔을 실천해준 후원사에 감사드립니다.



**홀트복지타운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 ‘꼼지락’**

코로나19로 이용자의 외출 및 외박을 금지하여 이용자들은 무료한 일상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방에서 ‘꼼지락’ 댄수밖에 없는 이용자를 위해 원내에 영화관, 노래방, 마트, 카페를 만들어 생활동별로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바깥이 아닌 내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이지만 지루한 일상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산지부
코로나19 극복 위한 후원 손길**

부산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위해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소미노’, ‘파란재봉틀’, ‘러블리조이’, ‘부산·울산·경남 한사랑회’에서 후원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쳐줘, 홈즈’**

(사)더불어함께사회망과 상담권익옹호팀은 시각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쳐줘, 홈즈’를 진행했습니다. 오래된 낡은 벽지를 새로 교체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작은 열쇠 구멍을 찾아 문 여는 것에 어려움을 겪던 시각장애인을 위해 디지털 도어락을 교체했습니다.



**충청지부
코로나19 위기가정 긴급지원 캠페인**

위기가정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전, 충남·충북에서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가정네트워크나무, 다원어린이집, 홀트대전후원회, 아름다운사람들, 용운어린이집/유치원, 입양가족자조모임(도담회, 첫사랑), 피아노소리 등의 단체와 개인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홀트강동복지관
코로나19 응원키트 지역사회 상점 100곳 전달**

강일동에 있는 100여 개의 지역 상점 소상공인분들에게 코로나19 응원키트를 전달하였습니다. 키트를 받은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전해준 선물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것 같다. 강일동 주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날 맞이 'The 사랑해, 꿈을 Pizza!'**

3월 31일부터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모금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얼어붙은 경기에도 불구하고 모금된 1,923,800원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97세대에 맞 있는 피자과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함께 전달해주었습니다.



**수영종합사회복지관
'홀트수영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

6월 1일,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무상돌봄이 제공되지 않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없앨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기초학습, 독서지도, 특별활동 등)가 제공될 예정이며,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통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어버이날 맞이 기념행사**

5월 8일,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어버이날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찾아가는 행사로 진행하였으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카네이션과 도시락 등이 담긴 선물세트를 포장하고 어르신 342세대를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2020년 어버이날 선물키트 증정**

매년 진행해왔던 어버이잔치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어 올하는 어르신 학교를 이용하는 약 500여 명의 어르신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어버이날 선물키트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복지관에서 다시 뵙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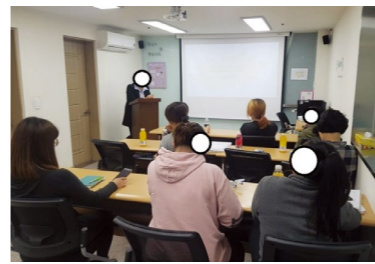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콕챌린지**

예방을 위해 집에서 주로 생활하는 주민을 위하여 4~5월 두 달간 '집콕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집콕놀이 인증샷 공모,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건강제조 유튜브 강좌, 한글교실 어르신들을 위한 가정학습지 배포 등 총 7개 주제의 프로그램에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침들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허심탄회 간담회**

5월 28일, 한부모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대전광역시에서 허심탄회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한부모가족의 어려움과 의견을 경청, 공감하였고 대전을 한부모가족들이 아이 키우기 더 좋은 도시로 만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고운들
컴퓨터 자격증 취득 시험**

고운들 엄마들은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를 학습하고 있으며 궁급증이 생기는 것은 바로 질문하고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운들 엄마들이 매사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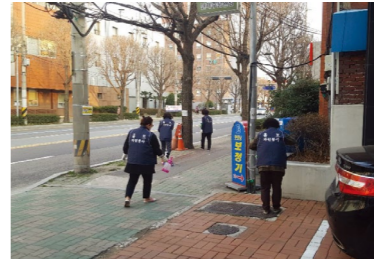
**대전클로버
상소동 산림욕장 숲 체험 나들이**

5월 2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하고 집에만 지내다가 오랜만에 대전 상소동 산림욕장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메타세콰이아 길도 걷고 울창이와 다람쥐도 만나며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무, 흙, 돌계단 등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 소중함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들
가정의 달 '가족소풍'**

5월 21일, 가정의 달을 맞아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월드컵 공원으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비하고 평일 한가한 시간을 택했습니다. 인적이 거의 없는 공원에서 모처럼 아기들은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어 신나고, 엄마들은 일상의 여유를 만끽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광주클로버
광주후원회, 지역사회를 위한 방역 자원봉사 실시**

3월 20일, 광주후원회 임원진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솔선수범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의 자원봉사단체, 주민자치회 등과 함께 전통시장, 종교시설, 복지시설 등의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대구클로버
코로나19 퇴소 미혼모가정 물품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대구클로버 입소 미혼모뿐만 아니라 퇴소 미혼모들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입소 미혼모는 자립활동이 모두 중단되었고 퇴소 미혼모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주변에서 보내주신 감사의 손길로 입소가정뿐만 아니라 퇴소 미혼모가정에도 후원물품들이 전달되었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집으로 찾아가는 가족 사랑의 날' 무드등 만들기**

휴관 기간 중 4~5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가족 사랑의 날' 무드등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자녀와 함께 무드등을 만들고 활동 후기를 선정하여 선물도 보내드렸으며 가족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akaoTalk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추가하고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
카카오 검색창 아이콘을 클릭

검색창에서 플러스친구
"홀트아동복지회"를 검색한 후
친구추가를 눌러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후원안내

아동·청소년후원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입양대기아동의 양육비, 의료비로 사용되며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한부모가정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한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 물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학교를 운영해 체계적인 치료와 자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국내·해외아동결연 후원

도움이 필요한 국내 및 해외 아동이 후원자와 결연을 맺고 교육, 의료, 가정, 정서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결연아동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3~6
- ARS후원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1955년 이래 이어진 사랑의 실천, 홀트아동복지회

1955년,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고 고통받고 있던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복지를 시작으로 아동·미혼한부모·장애인·지역사회복지, 다문화가족지원, 해외빈곤아동 지원에 이르기까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복지를 실천하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 후원은 마음이 하는 일

- 후원 상담 : 1899-0923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479037-01-000461 홀트아동복지회

홀트가족사랑예배

CCM 가수 박요한 목사(본회 홍보대사, 입양인)의 특별한 고백·찬양 간증 집회를 신청해 주세요.

- 대상** 주일·주중·특별예배·청장년집회
- 내용**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기도의 응답
- 문의** 홀트아동복지회 나눔참여팀(02-331-7176)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예배소개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식 정기구독, 아직 모르세요?

매일의 식사가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고 하죠.
내 몸을 위한 투자인데, 아무거나 먹을 수 있나요.
퀴노아, 햄프씨드 등 트렌디한 건강 식재료를 사용하고
간간하게 영양 설계한 후 셰프의 손맛을 더한
맛있는 건강식, 그리팅(Greating).
매일 바뀌는 메뉴로 식사 시간이 즐거워져요.
원하는 날, 새벽에 집 앞으로 배송돼 더욱 신선하게!

지금, 그리팅에서 '건강'을 주문하세요.
www.greating.co.kr

greeting

